

유형가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출입 꼼짝마”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는 유형업소들이 늘고 있다.

입학·졸업 시기를 맞아 신분을 속인 채 유형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잇따르면서 자칫 영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마른한 자구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위·변조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다, 5만~30만원이던 위·변조 신분증 거래도 가능해 불법적인 조치라는 게 업계 일반적 분위기다.

광주시 총장로 일대 상인 등에 따르면 구시청 일대를 비롯, 상무·수원지구 등 광주지역 일부 유형업소들은 지문 인식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감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당 65만~95만원 수준의 신분증 감별 기기를 구입해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식기는 지외선·적외선 검사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한 뒤 마지막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지문 조화를 제외한 실명 인증 절차까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3초 안에 이뤄져 고객들의 불편도 별로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총장로 Z클럽 사장 임모(38)씨는 “청소년 출입 뿐 아니라 미성년자 등 일행들이 신분증을 돌려쓰는 수법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신분증 감별기 5대를 총마다 설치했다”고 말했다.

인근 료소주방 매니저 김모(22)씨도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출가분한 마음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출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연말에는 신분을 속인 청소년들을 하루에

지문 인식기 도입

하루 3~4명 가려내

유해업소 24% 줄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만 3~4명을 찾아내기도 했다”면서 “적발되는 경우 영입정지 등 업소가 받는 불이익이 워낙 커 감별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총장로 구시청 사거리 등 동구 지역에서 영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절반 가량 감소하는 등 청소년 출입 및 유류 제공 혐의로 적발된 업소도 지난해 213곳으로 전년(281곳)에 비해 24.1% 줄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무턱대고 지문 인식기를 업소에 권유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관련법이 마련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측은 “인식기 설치 업소가 방문자 정보 저장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민번호·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는 검사와 동시에 삭제되고 지문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개인 정보 침해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일 밤 11시 광주시 동구 불로동 한 클럽 입구에서 손님이 지문 인식기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 해질 18:30 | 달뜨기 17:17 | 달지기 05:51

밝은 정월보름달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4	보성	맑음	-2/4
목포	맑음	-2/2	순천	맑음	-2/5
여수	맑음	-2/5	영광	맑음	-3/3
나주	맑음	-4/5	진도	맑음	-1/2
완도	맑음	-1/3	전주	맑음	-3/5
구례	맑음	-3/4	군산	맑음	-3/2
강진	맑음	-2/3	남원	맑음	-4/5
해남	맑음	-2/4	홍산도	맑음	0/3
장성	맑음	-4/3			

지역	방향	파고(m)	시간	파고(m)	
서해	남바다	서~북서	2.0~3.0	북서~북	2.0~3.0
	남바다	서~북서	3.0~4.0	북서~북	2.0~4.0
남해	남바다(동)	서~북서	1.0~2.5	서~북서	1.5~2.5
	남바다(서)	서~북서	3.0~4.0	북서~북	2.0~4.0
제주	남바다(서)	서~북서	2.0~4.0	북서~북	2.0~3.0
	북바다	서~북서	2.0~4.0	북서~북	2.0~3.0

날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	☀	☀	☀	☀	☀	☀
기온	-3/8	-2/11	1/12	1/13	2/11	2/10	1/10

광주지검, U대회 성공개최 지원단 발족

단장에 김희준 차장검사...9개 범죄 전담 단속반 운영

검찰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에 적극 나선다. 광주지검(검사장 김해수)은 3일 오후 지검 상황실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 지원단' 발족식을 갖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담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9개 범죄는 안전사고, 폭력·강력, 성폭력·풍속, 지적재산권, 식품, 환경, 조직폭력·마약, 외국인·출입국, 도박·사행행위 등이다.

지원단은 김희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서성호 공안부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9개 범죄에 대한 전담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향후 대회조직위, 광주시,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방본부 등과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직원 1인 1입장권 갖기, 관계기관 공무원 격려 시 부상으로 입장권 증정 등 불 조성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통신자료 검·경 제공' 이통 3사 상대 집단 손해소 추진

"개인정보 유출 심각" 참여연대 소송인단 모집 나서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데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소송을 이끄는 박경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통사가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지

만 개별 가입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2012년 10월 회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례를 참작한 것이다. 이 소송은 네이버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762만건에 달한다.

앞서 법원은 올 1월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이통사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

이 있다. 이통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통신자료 제출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데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이통 3사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통 3사에서는 지난 1월 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